



부록 | 모의고사 지문 분석

2024학년도 시준6 제4차 이감 국어 모의고사 지문 분석을 수록하였습니다.

독서 _____ 92쪽

문학 _____ 99쪽

베르그송의 '순수 지속'

지문 평가

기본적으로 평이한 전형적인 예술 지문이다. 본인의 취향에 따라 글의 내용이 나 흐름이 공감가지 않았을 수도 있으나, 차분하게 각각의 표현들이 어떤 관점에 대응되는지만 챙겨 나가면 충분하다.

키워드

예술 - 현대 예술 - 베르그송, 순수 지속

회화, 베르그송, 순수 지속, 지성, 시간의 공간화, 직관, 의식, 세잔, 「강독에서」

문단 1 회화에서의 시간의 흐름 표현

시간의 흐름을 기반으로 하는 음악이나 문학과 달리, 회화는 멈춰 있는 순간을 보여 줄 수 있을 뿐이라고 여겨지곤 한다. 그럼에도 회화를 통해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려는 화가들의 시도가 이어져 왔으며, 특히 베르그송은 순수 지속의 개념을 제시하며 이론적 측면에서 그 가능성을 탐색하기도 했다.

▶ 통념에 따르면 '회화'는 시간의 흐름을 보여 주지 못한다. 그러나 '베르그송'은 회화도 '시간의 흐름'을 보여 줄 수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순수 지속'이라는 개념을 내세웠다.

ⓧ 맥락 짚기 첫 문단에서는 의식적으로 글의 초점을 파악하려 해야 한다. 이 글의 경우 '순수 지속'의 개념이 무엇인지, 이것이 '시간의 흐름'을 보여 주는 것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문단 2 베르그송의 순수 지속 개념

1) 베르그송은 생명체를 포함한 모든 물질의 본질이 지속적인 변화에 있다고 보았다. 불변하는 대상을 에워싸고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한한 변화 속에 놓여 있으며 그 변화 자체가 곧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 같은 세계의 본질이나 실재를 순수 지속이라 불렀는데, 이는 단일 대상의 변화를 넘어 세상의 이질적인 것들이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며 변화하는 전체를 가리킨다.

▶ 표현들을 챙기자. '무한한 변화, 세계의 본질이나 실재, 순수 지속,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며 변화' 등등이 눈에 들어온다.

ⓧ 맥락 짚기 'A가 아니라 B이다.'와 같은 표현이 주어졌다면, 의식적으로 A와 B를 구분하여 챙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베르그송'이 주장하는 바가 A와 구분되는 B라는 바를 강조하는 서술이기 때문이다.

A	B
불변하는 대상을 에워싸고 흐르는 시간	모든 것이 무한한 변화 속에 놓임 [→ 모든 것이 변화하므로, '불변하는 대상'이란 없음]

▶ 따라서 '베르그송'이 도입한 '순수 지속'이란 이름 그대로 만물이 '지속'하여 변화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멈춰 있는 것은 없으며, 불변하는 것도 없이, 모두 지속하는 무한한 변화 속에 놓여 있다는 뜻이다.

'순수 지속' = 시간의 흐름 = 모든 것이 무한한 변화 속에 놓여 있음

2) 베르그송은 순수 지속에 대한 지각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복잡한 현상을 단순화하여 이해하는 지성을 지목했다. 본래 정량화할 수 없는 시간은 지성의 작용에 의해 분초 단위로 세분화됐으며, 그 전 체조차 그렇게 분해된 시간 요소들이 공간에 안착된 채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 모든 것은 무한한 변화 속에 놓여 있는데, '지성'은 그것을 멈춰 놓고 한 순간 한 순간으로 세분화하여 바라보게 한다. 따라서 '지성'은 순수 지속의 지각을 방해하는 것이다.

ⓧ 주목 '지속'을 방해하는 것으로 표현된 '분초 단위로 세분화, 분해된 시간 요소' 등의 표현에 주목하자. 이렇게 계속해서 '베르그송'의 관점에 부합하는 표현들과 부합하지 않는 표현들을 구분하며 챙겨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문단 3 순수 지속에 대한 직관

1) 기존의 회화에 대해 베르그송은 흐르는 시간의 한 단면만을 추출하여 제시하는 '시간의 공간화'에 불과하다고 폄하했다. 기존의 회화에서 시간은 본질이 퇴색된 채 공간에 대한 시각적 인식으로 대체되었고, 이렇게 시각적 요소만 강조된 회화 공간은 이질적인 대상들 간의 지속적인 관계나 변화가 배제된다는 점에서 가상의 공간일 뿐이라는 것이다.

▶ '기존의 회화' 즉 '멈춰 있는 순간'을 보여 주는 전통적인 회화[문단]에 대한 베르그송의 평가다. 마찬가지로 표현들에 주목하면 된다. '흐르는 시간'을 그 자체로 보여 주는 대신에, 즉 순수 지속의 개념을 담아내는 대신에 '한 단면만을 추출했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 순수 지속을 담지 않은 것은 곧 '세계의 본질'을 담지 못한 셈이므로 문단 2-1). 이는 실재가 아닌 '가상의 공간'에 불과한 것이 된다.

2) 그는 예술가들이 실재를 체험하고 이를 직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관이란 지성에 의해 구축된 세계에서 벗어나 우리의 의식 속에서 대상과 그 변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베르그송에 따르면 우리의 의식은 시각에만 의존하지는 않아서, 이렇듯 실재와 자아가 공존하는 속에서 이루어지는 직관이 가능하다.

ⓧ 맥락 짚기 '베르그송'은 '직관'을 '지성'과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강조하였다. '지성'은 시간을 세분화한다[면] → 실재로서의 '변화'를 배제한다[면], '직관'은 그 '변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두 표현을 구분하여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지성	직관
시간을 분초 단위로 세분화 시각에만 의존	대상과 그 변화를 그대로 받아들이 시각에만 의존하지 않음

3) 나아가 그는 이러한 순수 지속에 대한 직관이 예술가에 의해 이루어질 때에 회화 기법도 새로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베르그송은 따라서 회화 역시 '지성'이 아닌 '직관'에 의존할 때 '시간의 흐름을 표현'할 수 있다고 보았단다[문단].

문단 4 시간의 흐름을 표현한 세잔의 회화

1) 베르그송의 관점에 따라, 세잔은 회화에서 최초로 시간의 흐름을 표현했다고 평가받곤 한다. 모든 것은 흘러지고 지나간다고 생각한

세잔은 회화가 변화의 지속이 주는 전율을 표현해야 한다고 보고, 각 사물의 상호 작용과 변화를 보이기 위해 형태나 색채가 겹쳐지도록 그렸다.

➡ 시간의 흐름을 표현한 구체적인 예술가로 '세잔'을 제시하고 있다. '각 사물의 상호 작용과 변화'를 보이며 한 것은 '순수 지속'을 표현하기 위함이었다 [문단2-1]. 이를 위해 '겹쳐지도록 그렸다'라는 표현을 잘 챙겨 두자.

2) 예컨대 그의 **『강둑에서』**를 보면, 나무들은 형태 안에 고립되어 있지 않고 인접한 대상으로 흘러드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원근법을 해체하여 원경을 크게 그렸으며 고정된 시점에서도 벗어나 여러 각도에서 본 듯한 풍경을 그림으로써, 시간의 단면을 담은 기존의 풍경화를 넘어서려 했다. 그렇다고 해서 위치를 바꿔 가며 그린 것은 아니고, 한곳에 머물며 의식에 담긴 자신의 체험을 그렸다.

◀> 맥락 짚기 구체적인 예시가 주어졌다. 마찬가지로 표현들에 집중하면서 이를 통해 결국 표현하고자 한 바가 '순수 지속'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상기하면 된다.



세잔, 『강둑에서』

<보기> 분석

<보기> 문단

1) 회화에서 시간성을 표현하려 한 인상주의 화가들은 순간의 포착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들은 대상의 실체보다는 빛의 움직임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순간의 인상을 묘사한 것이 가장 사실적인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 맥락 짚기 지문의 '베르그송'이 강조한 '순수 지속'의 개념과 관련하여, '세잔'이 아닌 '인상주의 화가'들은 베르그송에게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를 판단해야 한다.

➡ 사실상 이 시점에서 확고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순간의 인상을 묘사한 것'을 인상주의 화가들은 강조하였는데, 이는 '베르그송'의 입장에서 대상이 '지성'에 의해 '분초 단위로 세분화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문단 2-2].

2) 이들은 대상을 충실히 체험하기보다 한자리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순간을 빠르게 그렸으며, 포착된 순간이 단편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시간대를 달리하여 그리는 등 연작을 발표하는 경향을 띠었다. 이렇게 즉각적인 현재를 그린 연작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시간의 연속성을 표현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 이때 인상주의 화가들은 그렇게 표현한 '포착된 순간'이 '순간의 인상을 묘사한 것'임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즉 이 자체가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다.

※ 주목 그래서 인상주의 화가들은 '연작'을 발표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즉 순간들을 나열함으로써 → 분초 단위로 세분화된 것들을 다시 이어 붙임으로써,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려 한 것이다. 다만 이것이 베르그송의 관점에 온전히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미 지성에 의해 세분화된 순간들을 이어 붙임으로써 '전체'가 된다는 것은 '직관'에 의해 '전체'를 체험해야 한다고 본 베르그송의 관점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 '베르그송'의 관점에서 세계의 본질이란 곧 '순수 지속'이다. 이는 단일 대상의 변화를 넘어선 것으로, 세상의 이질적인 것들이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며 변화하는 '전체'이다. 따라서 '단일 대상의 무한한 변화'를 세계의 본질로 바라보는 것은 '베르그송'의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베르그송의 관점에서는 그것을 <보기>의 관점에서 수용할 것이라고 볼 이유가 없으므로, ③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이감

금속 나노 입자 기반 스트레인 센서

지문 평가

금속 나노 입자를 기반으로 한 스트레인 센서에 대한 전형적인 원리 위주의 기술 지문이다. 스트레인 센서의 민감도를 '나노 입자 간 거리'와 연관지어 읽되, 리간드가 여기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키워드

기술 - 분석 기술 - 스트레인 센서

스트레인 센서, 금속 나노 입자 기반 스트레인 센서, 나노 입자, 유연 기판, 전도도, 저항, 민감도, 게이지 팩터, 스트레인, 초기 저항, 리간드, 배위 결합, 올레이트, MPA, 브롬 이온

문단 1 금속 나노 입자 기반 스트레인 센서

- 1) 인체에 부착되어 관절이나 혈관 등에서의 작은 움직임까지 감지하는 센서로, 외력에 의한 변형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스트레인 센서가 있다.

▶ '스트레인 센서'에 대한 설명이다. 외력에 의한 '변형'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함으로써, 작은 움직임을 감지하는 것이다. 즉 작은 움직임에 의해 센서에 가해지는 '변형'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것이 '스트레인 센서'라고 이해해도 좋겠다.

- 2) 근래에는 기존의 것보다 민감도가 높아져 미세한 진동까지 감지할 수 있는 금속 나노 입자 기반 스트레인 센서가 개발되었다. 이는 민감도가 높지만 상온, 상압에서의 공정으로 제작할 수 있어서 대량 생산하기도 쉽다.

◎ 맥락 짚기 글의 초점이 주어지는 대목이다. '금속 나노 입자 기반 스트레인 센서'와 관련하여, '높은 민감도, 대량 생산 용이'를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한 장점을 갖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면서, 해당 기술의 원리와 과정을 파악해야 한다.

문단 2 금속 나노 입자 기반 스트레인 센서의 원리

- 1) 이 센서는 특정 용매에 금속 원자들을 뒤섞어 만든 용액에서 금속 나노 입자들을 합성한 후, 이 입자들을 유연 기판의 한쪽 표면에 촘촘히 도포하는 용액 공정으로 제작된다. 유연 기판은 전기가 통하도록 하되, 고분자 물질을 첨가해서 잘 휘어지도록 한 기판이다.

◎ 맥락 짚기 유연 기판의 '한쪽 표면에 촘촘히 도포'된다는 것은 일종의 묘사이다. 이렇게 묘사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을 그리거나, 적어도 구체적으로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앞으로의 설명을 쫓아가기에 훨씬 유용하기 때문이다.



- 2) 이 기판에 작은 압력이나 미세한 진동 등의 외력이 가해지면 변형이 일어나서 표면의 나노 입자들 간의 거리가 달라짐에 따라 전기 저항의 역수에 해당하는 전도도에 변화가 발생한다. 입자 간 거리

가 멀어질수록 저항이 커지는 것이다.

※ 주독 '스트레인 센서'는 외력에 의한 변형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한다[문단 1-1]. 그 구체적인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관련하여 '나노 입자들 간의 거리'와 '저항'에 대한 관계가 주어졌으므로 정리하자. 이런 식으로 전기적 신호로의 변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외력 ⇨ 나노 입자들 간의 거리 ↑ ⇨ 저항 ↑

▶ 외력이 가해지면 기판이 변형되고(→ 1)에 따르면 변형이 일어나기 쉽게 잘 휘어지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표면에 도포되어 있던 입자들 간의 거리는 멀어진다. 그로 인해 '저항'이 커지는 것이다.

문단 3 게이지 팩터

- 1) 일정한 크기의 변형이 일어날 때 저항 변화의 폭이 클수록 센서의 민감도가 더 높다. 민감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미세한 변화까지 감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 '민감도'에 대한 설명이다. 새로운 센서가 어떻게 '높은 민감도'를 갖는가를 설명하기에 앞서[문단 2], 민감도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설명하려는 것이다.

◎ 맥락 짚기 '변형의 크기'와 '저항 변화의 폭' 간의 관계가 주어졌으니 정리하자. 이렇게 수식의 형태로 정리할 수 있다면 되도록 수식의 형태를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text{민감도} \propto \frac{\text{저항 변화의 폭}}{\text{변형의 크기}}$$

※ 주독 민감도는 변형의 크기에 비해 저항 변화의 폭이 얼마나 큰지를 뜻한다. 따라서 '민감도'가 높을수록 미세한 변형(→ 분모의 증가량이 작아도)도 충분히 큰 저항 변화로 확인할 수 있다(→ 분자의 증가량이 커서, 변형을 잘 감지할 수 있다).

- 2) 일반적으로 스트레인 센서의 민감도는 게이지 팩터를 통해 확인된다. 게이지 팩터는 변화된 저항에서 초기 저항을 뺀 값을 초기 저항으로 나눈 후, 그 값을 유연 기판의 표면에 발생한 스트레인으로 나누어 구한다. 스트레인은 외력에 의한 변형의 양에 해당한다. 이렇게 구한 게이지 팩터가 클수록 민감도가 더 높다.

◎ 맥락 짚기 '민감도'를 구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주어졌다. 이 또한 수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므로, 그렇게 표현하여 정리해 두자.

$$\text{게이지 팩터} = \frac{\text{변화된 저항} - \text{초기 저항}}{\text{초기 저항} \times \text{스트레인}}$$

게이지 팩터 ↑ ⇨ 민감도 ↑

문단 4 리간드와 초기 저항

- 1) 이렇듯 민감도에는 외력이 가해지기 전, 즉 입자 간 거리가 초기 상태일 때에 지나는 저항인 초기 저항이 영향을 미친다. 초기 저항은 입자의 성질 변화를 막기 위해 입자를 둘러싸고 있는 리간드들을 바꿈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 주독 문단 3-2의 '초기 저항'은 외력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저항이다. 주어진 수식을 고려했을 때,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높은 민감도'를 얻기 위해서는 '초기 저항'의 값이 작아야 한다. 그래야만 '게이지 팩터'가 커지고,

다시 그래야만 '민감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간드'를 어떻게 바꿔 초기 저항을 낮출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 2) **리간드**는 한쪽 끝이 금속 나노 입자에 배위 결합할 수 있는 긴 원자단으로, **배위 결합**은 리간드 측 원자에서 전자쌍을 내놓아 이를 금속 원자와 공유하며 이루어지는 결합을 말한다. 리간드들이 맞닿아 있도록 나노 입자들을 촘촘히 도포한 상태이므로 리간드의 길이가 길수록 초기 상태에서의 입자 간 거리가 멀어진다.

➡ '리간드'에 대한 설명이다. '리간드'가 '초기 저항'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가 우리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정보는 단 하나뿐이다. 핵심은 '리간드의 길이'이다. '리간드의 길이'는 '입자 간 거리'와 비례하는데, 입자 간 거리는 '저항'에 비례한다[문단2-2]. 즉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리간드의 길이는 짧을수록 좋다.

리간드의 길이! ⇨ 나노 입자간 거리! ⇨ 초기 저항!

문단 5 리간드 치환

- 1) 나노 입자는 합성 직후 상당히 긴 리간드인 **올레이트**로 둘러싸여 있어서, 입자들에 전도성을 부여하려면 이보다 짧은 리간드로 치환해야 한다. 리간드 용매를 사용하여 기존의 배위 결합을 끊고 새로운 리간드로 치환하는 것이다. 비교적 긴 리간드인 **MPA**나 짧은 리간드인 **브롬 이온** 등으로 치환할 수 있는데,.....

➡ 상당히 어려운 서술이므로 차근차근 이해하자. 앞선 설명에 따르면 '전도도'는 전기 저항의 역수에 해당한다[문단2-2]. 이는 저항이 높을수록 전도도는 낮아진다는 뜻이다.

※※ 주목 따라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긴 리간드는 초기 저항이 너무 높아서 전도도가 너무 낮다. 그래서 '전도성'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나노 입자에 전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초기 저항을 낮출 필요가 있으므로, '짧은 리간드'로 치환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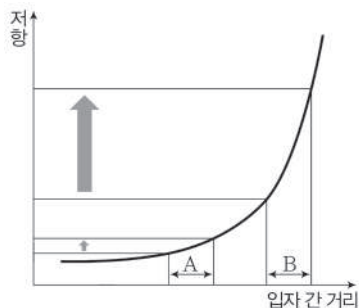
- 2) 치환 후 게이지 팩터가 낮은 나노 입자는 센서의 끝부분인 전극 영역에, 그보다 높은 나노 입자는 변형 감지 영역에 사용한다.

➡ 그렇게 치환된 '짧은 리간드'들 중에서 '게이지 팩터'가 높아서 민감도가 높은 것들을 '변형 감지 영역'에서 사용한다[문단3-2].

<보기> 분석

<보기> 문단

다음은 **초기 저항**이 저항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구간 A와 B는 **사용된 리간드만** 다르고 나머지는 동일한 두 **금속 나노 입자 기반 스트레인 센서**에 동일한 외력을 가했을 때 나타난 입자 간 거리 변화량으로, 동일한 값을 지닌다.



※※ 맥락 짚기 무엇이 변수인지에 유의하자. '사용된 리간드'만 다르다는 것은 결국 리간드의 길이가 다르다는 것을 뜻한다. 즉 A는 '짧은 리간드', B는 '긴 리간드'라고 생각해도 되겠다. A의 초기 저항이 더 낮기 때문이다.

리간드의 길이! ⇨ 나노 입자간 거리! ⇨ 초기 저항!

※※ 주목 동일한 외력을 가했을 때 B에서의 저항 변화량이 더 크다. 저항 변화량이 크다는 것은 '게이지 팩터'가 크다는 뜻이다[문단3]. 그렇다면 B는 '동일한 외력'이 주어졌을 때 '저항 변화의 폭'이 더 크므로, 민감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초기 저항'이 낮을수록 '민감도'가 높다 [문단3-2]. 그런데 <보기>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A는 초기 저항은 낮지만 '변화된 저항'도 매우 낮아서 '게이지 팩터'가 낮다. 그렇기 때문에 게이지 팩터가 더 높은 B의 민감도가 더 높은 것이다. 이때 B는 길이가 '긴 리간드'이므로 브롬 이온이 아닌 MPA가 민감도가 높아야 하는 '변형 감지 영역'으로 더 적절하다[문단5]. 따라서 ⑤번 선지는 적절하다.

이감

인공 지능의 저작권 침해와 책임 귀속의 문제

지문 평가

얼핏 정보량이 많아 보이지만 적절하게 개념들을 잘 구분해 가면서 읽으면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글이다.

키워드

(가) 인문 - 철학 - 자율적 행위자, 책임 귀속

인공 지능, 책임, 자율적 행위자, 무어, 명시적 윤리 행위자, 암묵적 윤리 행위자, 1차 수준의 자유도, 2차 수준의 자유도, 무어의 비판자들, 무어의 지지자들, 기능주의, 확장된 행위자

(나) 사회 - 법학 - 저작권 침해

기계 학습, 저작물 활용, 사용자, 공정 이용, 공정 이용 법리, 변형적 이용, 상업적 이용, 역분석, 유사성, 의거성

(가) 문단 1 인공 지능의 지위와 책임

- 1) 정해진 일련의 절차인 알고리즘에 따라서만 작동하는 자동화 기계들과 달리, 인공 지능은 '기계 학습'을 통해 스스로 알고리즘을 변화시키므로 그 행위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통제하기 어렵다.

▶ '자동화 기계'들과 구분되는 '인공 지능'의 특성이다. 인공 지능의 핵심은 '스스로 알고리즘을 변화'시킨다는 데에 있다. 그래서 '행위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통제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자동화 기계	인공 지능
정해진 알고리즘에 따라 작동 ∴ 행위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통제하기 쉬움	스스로 알고리즘을 변화시킴 ∴ 행위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움

- 2) 그래서 인공 지능이 야기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는 인공 지능이 자율적 행위자의 지위를 갖는지에 대한 논의와 결부되어 있다. 자율적 행위자에 게만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백락 짚기** 글의 초점이 주어지는 대목이다. 책임을 귀속시키기 위한 조건이 '자율적 행위자'이므로, 인공 지능이 자율적 행위자의 지위를 갖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자율적 행위자 ⇒ 책임 귀속 가능

(가) 문단 2 자율적 행위자에 대한 무어의 정의

- 1) 컴퓨터 윤리학자 무어는 '명시적 윤리 행위자'이면서 '2차 수준의 자유도'를 가지는 기계는 자율적 행위자라고 본다.

▶ '무어'는 자율적 행위자를 '명시적 윤리 행위자'이자 '2차 수준의 자유도'를 가지는, 즉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존재로 정의했다. 따라서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자율적 행위자의 지위를 갖는 기계는 책임 귀속의 대상이 된다.

<자율적 행위자의 조건>

- 명시적 윤리 행위자
- 2차 수준의 자유도를 가짐

- 2) 명시적 윤리 행위자는 행위 규범에 근거하여 입력 내용에 대한 가능한 반응들 중 하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현금 자동 지급기처럼 예상외의 반응을 하지 않는 '암묵적 윤리 행위자'와 구별된다.

◀▶ **백락 짚기** 정보량이 많아 보이지만, 필요한 정보들을 잘 구분해서 파악하면 간결하다. 개념들이 열거되어 있을 때 관련 개념들을 잘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암묵적 윤리 행위자'와 '명시적 윤리 행위자'를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암묵적 윤리 행위자	명시적 윤리 행위자
예상외의 반응을 하지 않는 존재	입력 내용에 대한 가능한 반응들 중 하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 ⇒ 예상외의 반응을 할 수 있는 존재

- 3) 또한 세탁물의 양에 따라 세탁 방식을 선택하는 자동 세탁기처럼 입력 내용에 대응하여 정해진 알고리즘을 따르는 1차 수준의 자유도와 달리, 2차 수준의 자유도는 알고리즘 자체를 매번 변화시켜서 예측할 수 없는 성질을 말한다.

◀▶ **백락 짚기**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1차 수준의 자유도'와 '2차 수준의 자유도'를 구분하여 파악해야 한다. '정해진 알고리즘'을 따르는가가 구분의 기준이 된다.

1차 수준의 자유도	2차 수준의 자유도
정해진 알고리즘을 따르므로 예측할 수 있음	알고리즘 자체를 매번 변화시켜서 예측할 수 없음

◀▶ **주목** 핵심이 되는 표현들에 주목했으면 이해하기가 쉬웠을 것이다. 종합해 보면 '자율적 행위자'이기 위해서는 '스스로 선택'하여, '알고리즘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예측할 수 없어야' 한다.

- 4) 무어는 인공 지능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았다.

▶ **예상대로의 귀결**이다. 인공 지능은 스스로 알고리즘을 변화시키고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문단1-1]. 즉 무어의 기준에 따르면, 인공 지능은 '자율적 행위자'이고 따라서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다[문단1-2].

(가) 문단 3 자율적 행위자에 대한 관점들

- 1) 그런데 무어의 비판자들은 무어가 자율적 행위자의 개념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통적이면서 합의된 관점을 따를 경우 이성적 속고로 자신의 행위 규범을 만드는 존재만이 자율적이며 자발적 행위 의도를 가진 존재만이 행위자이므로, 인간만이 자율적 행위자라는 것이다.

◀▶ **백락 짚기** 무어의 주장에 대한 비판이 제시되었다. '무어'와 '무어의 비판자들' 간의 관점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전통적이면서 합의된 관점'을 따르는 '무어의 비판자들'은 '인간'만이 자율적 행위자라고 본다. '이성적 속고'를 거치면서, 자발적 행위 의도를 가진 존재'는 인간뿐이기 때문이다. 즉 '인공 지능'은 자율적 행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2) 이에 대해 **무어의 지지자들**은 현대의 지배적 관점인 **기능주의**를 따를 경우 인공 지능이 자율적 행위자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능주의에 따르면 어떠한 내적 상태는 그것이 외부에 수행하는 기능을 통해 규정되는데, 인공 지능이 외부에 수행하는 기능은 인간이 수행하는 기능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 **주목** 다시 '무어의 지지자들'의 관점을 '무어의 비판자들'과 구분하여 이해하자. 이들은 '전통적이면서 합의된 관점'에 동의하지 않으며, 그 대신에 '기능주의'를 따른다.

▶ '무어의 지지자들'이 따르는 '기능주의'에 의하면, 인공 지능과 인간이 외부에 수행하는 기능은 동일하므로, 그 내적 상태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인간처럼, 인공 지능도 '자율적 행위자'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가)문단 4 인공 지능의 책임 귀속 문제

1) 무어의 비판자들은 인공 지능에 책임을 묻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인공 지능의 작동을 중단시키거나 해체한다고 해도 이를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인간이 불이익을 당하는 정도에 그친다는 것이다.

▶ 다시 '무어의 비판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인공 지능은 '자율적 행위자'가 아닐 뿐더러, 애초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존재라고 지적한다.

2) 이에 대응하여 무어의 지지자 중 일부는 인공 지능과 인간을 하나의 행위 주체로 보는 **'확장된 행위자'** 개념을 제안한다. 인공 지능이 행위 하는 상황은 대개 인간이 그 도움을 받아 일을 하는 상황이므로, 인공 지능이 야기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확장된 행위자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회사에 법률상의 인격인 법인격을 부여하고 회사가 야기한 결과에 대해 회사와 그 운영 주체인 인간 모두에게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과 유사하다.

▶ 다시 '무어의 지지자들'의 주장이다. 이들 중 일부는 '확장된 행위자'라는 개념을 통해 인공 지능과 관련된 인간을 한데 묶어서 '하나의 행위 주체'로 본다. 따라서 인공 지능이 야기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그와 한데 묶인 인간에게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나)문단 1 인공 지능의 저작물 활용의 저작권 침해 문제

1) 인공 지능이 창작물을 생성하려면 먼저 **기계 학습**을 거쳐야 하며 그 과정에서는 보통 타인의 저작물들이 활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그러한 **저작물 활용**이 저작권 침해 행위인지의 여부와 그 법적 책임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의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

※ **맥락 짚기** 통합 지문을 읽을 때에는 (나)를 읽으면서 (가)의 내용을 의식적으로 끌어올 수 있어야 한다. 공통적으로 '인공 지능'을 중심 소재로 하는데 (나)에서는 인공 지능의 저작물 활용이 저작권 침해 행위인지와, 법적 책임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를 묻고 있다. 책임 귀속의 문제는 (가)의 관점들을 참고하되,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나)를 주의 깊게 살펴 파악해야 한다.

2) 인공 지능의 **사용자**에게 저작권 침해의 의도가 있었다면 사용자에게 책임이 귀속되었지만, 일반적으로는 **인공 지능 스스로의 작용**에 의해 타인의 저작물들이 이용된다.

▶ 한마디로 일반적으로는 인공 지능에 의해 '저작권 침해 행위'가 벌어졌을 때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3) 그래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공정 이용**을 허용하는 저작권법의 조항이 적용될 수 있을지의 여부가 거론되고 있다.

※ **맥락 짚기** 글의 초점이 좁혀지는 대목이다. '공정 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인공 지능의 저작물 활용과 관련된 법적 책임'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나)문단 2 공정 이용 범위

1) 미국의 판례들을 통해 확립된 **공정 이용 법리**에 의하면, 우선 저작물의 변형적 이용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 **변형적 이용**은 **상업적 이용**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원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하되 원저작물과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원저작물과 동일한 목적으로 이용하되 그 내용을 변형하는 것을 말한다.

▶ '공정 이용 법리'에 따르면 '변형적 이용'은 '상업적 이용'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공정 이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변형적 이용'이어야만 한다.

<변형적 이용>

- 1) 원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하되 다른 목적으로 이용
 - 2) 원저작물과 동일한 목적으로 이용하되 내용을 변형
- ⇒ 공정 이용 ○

2) 인공 지능의 저작물 이용이 **변형적 이용**이라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 **주목** 따라서 인공 지능의 저작물 이용을 '변형적 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애초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므로, 누구에게 책임을 귀속시킬지도 고민할 필요가 없다(문단-3)].

3) 해당 법리에 의하면, 완성품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 이를 분해하여 분석하는 **역분석**도 상업적 이용에서 벗어난 **변형적 이용**인 경우에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 역분석이 사용자의 수익을 위해 이루어진 것일지라도 새로운 창작물의 생성을 위한 중간적이고 파생적인 행위라면 변형적 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 '역분석'이 변형적 이용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이다. 그대로 잘 챙겨 두고 넘어가자.

4) 즉 인공 지능의 저작물 이용이 기계 학습을 위한 **중간적이고 파생적인 행위**라면 변형적 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 결론적인 서술이다.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기계 학습 위한 중간적·파생적 행위 ⇒ 변형적 이용 ○
⇒ 공정 이용 ○ ⇒ 저작권 침해 성립 ×

(나)문단 3 인공 지능이 생성한 창작물의 저작권 침해

1) 인공 지능의 저작물 이용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더라도, 기계 학습 후에 생성한 창작물이 **기존의 저작물과 유사하면 저작권법상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 **주목** 비록 인공 지능의 저작물 이용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더라도, 그 결과물의 내용에 따라 여전히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다소 초점이 옮겨지는 대목이므로 이어지는 내용에 집중해야 한다.

2) 이때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유사성**을 넘어 인공 지능의 창작물이 타인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제작되었다는 **의거성**까지 충족되어야 한다.

※ 주목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제시한 '의거성'을 '유사성'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유사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의거성'까지 충족해야만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유사성	의거성
창작물이 원저작물과 비슷함	창작물이 원저작물에 의거하여 제작되었음

3) 다만 인공 지능의 정보 처리나 창작은 예측이나 통제가 어려운 영역이므로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현행법상, 인공 지능의 창작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책임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는 여전히 불명확하다. 그래서 저작권 보호와 인공 지능 기술 개발의 균형을 도모하는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적당한 마무리다.

<보기> 분석

<보기> 문단

1) 한 인공 지능 개발자는 소설을 쓸 수 있는 **인공 지능 A**를 개발하였다. A의 기계 학습 과정에서는 주로 기존의 작품들을 수집하여 어절 단위로 분해하면서 진행하는 **역분석**이 이루어졌다.

◎ 맥락 짚기 인공 지능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가 주어졌으므로, 지문의 개념들과 연결하여 이해해야 한다. '역분석'이 주어졌으므로, 이것이 변형적 이용으로 인정되어 '공정 이용'일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우선일 것이다 [(나)의 문단2-3].

2) 개발자의 입력 내용을 받은 A가 인간이 쓰듯 소설을 작성했고 이것이 출간되자, 해당 소설이 다른 여러 작품들과 부분 부분 상당히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저작권 침해에 관한 재판이 시작되었다.

➡ (가)와 관련하여 판단하자면, 무어는 인공 지능이 '자율적 행위자'라고 보았다 [(가)의 문단2]. 즉 인공 지능 A가 행위 규범에 근거해 개발자의 입력 내용에 대해 가능한 반응을 선택할 수 있으며, 동시에 입력 내용에 의해 A가 창작한 소설의 내용을 예측할 수 없다면 A를 '자율적 행위자'로 볼 수 있다.

➡ 이에 대해 '무어의 비판자들'은 애초에 인간만이 자율적 행위자일 수 있다고 주장하겠지만 [(가)의 문단3-1)], '기능주의'의 논리를 수용한 '무어의 지지자들'은 인공 지능 A는 인간과 동일한 기능[→ 소설 작성]을 하였으므로 내적 상태가 동일하고, 따라서 A와 인간은 모두 자율적 행위자라고 볼 것이다 [(가)의 문단3-2)].

∴ 그런데 인공 지능 A가 창작한 소설이 다른 저작물과 유사하다는 '유사성'의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유사성만을 근거로 A의 소설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의거성'까지 충족되어야 하는데, 유사하다는 것만으로는 '의거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나)의 문단3-2)]. 따라서 ⑥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유사성	의거성
창작물이 원저작물과 비슷함	창작물이 원저작물에 의거하여 제작되었음

3) 재판에 따르면 A의 역분석은 소설의 출간을 통한 개발자의 수익을 위해 이루어졌으나, 재판부는 A의 역분석이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단, 재판부는 공정 이용 법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 재판부는 이를 '공정 이용'으로 판단하였는데, 이는 A의 역분석을 기계 학습을 위한 중간적이고 파생적인 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나)의 문단2-4)]. 이때 역분석이 개발자의 수익을 위한 점이라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나)의 문단2-3)].

이감

[18~21] 현대시

(나) 「새」

— 김지하 —

작품 평가

정치적 박해로 감옥에 갇힌 화자가 창밖의 새를 보며 자신의 처지에 대한 절망감과 자유에 대한 열망을 나타낸 작품이다. 여기서 자유는 단순히 감옥을 벗어나는 것과 같은 개인적 차원이 아닌, 독재 정권하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것과 같은 시대적 차원으로 확장해서 이해할 수 있다.

제 1연 창밖의 풍경과 대비되는 자신의 처지

저 청청한 하늘
저 흰 구름 저 눈부신 산맥
왜 날 올리나
날으는 새여
묵인 이 가슴

- ▶ '청청한 하늘', '흰 구름', '눈부신 산맥'은 화창한 창밖의 풍경들로, 감옥에 갇혀 그것들을 바라보는 화자의 슬픔을 자극하고 있다. 또한 '저'라는 지시어를 통해 화자와 그 대상들 간의 거리감을 부각하고 있다.
- ▶ '새'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자유로운 '새'와 대비되는 자신의 처지[→ '묵인 이 가슴']에 대한 한탄을 드러내고 있다.

제 2연 달을 수 없는 소망과 그로 인한 고통

밤새워 물어뜯어도
닿지 않는 밀바닥 마지막 살의 그리움이여
피만이 흐르네
더운 여름날의 썩은 피

- ▶ '밀바닥 마지막 살'은 화자가 '밤새워 물어뜯어' 달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온몸으로 갈구하는 소망 또는 추구하는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 소망 또는 추구하는 가치는 감옥을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것, 나아가 독재 정권이 몰려나 자유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 등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 ▶ 상처를 환기하는 '피'를 '썩은 피'로 변주하여 반복함으로써 달을 수 없는 소망으로 인한 고통을 강조하고 있다.

제 3연 억압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과 절망적인 현실

땅을 기는 육신이 너를 우러러
낮이면 낮 그여 한 번은
울 줄 아는 이 서러운 눈도 아예
시뻘건 몸뚱어리 몸부림 함께
함께 답새라(= 없애라)
아 끝없이 새하얀 사슬 소리여 새여
죽어 너 되는 날의 길고 아득함이어

- ▶ '땅을 기는 육신'은 억압된 화자의 상황을, '서러운 눈', '시뻘건 몸뚱어리 몸부림'은 온갖 몸부림에도 부당한 억압을 벗어나지 못하는 화자의 비참을 처지를 환기한다. 그것들을 '함께 답새라'라고 함으로써, 억압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끝없이 새하얀 사슬 소리'는 구속과 결박을 환기하는 쇠사슬의 소리가 끝이 없다고 함으로써, 갇힌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화자의 절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사슬 소리'를 '끝없이 새하얗다'고 함으로써 청각을 시각화하여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 '새하얀'은 쇠사슬의 변색되는 빛깔, 혹은 정신이 새하얗게 혼미해진 상태 등을 나타내는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다.

▶ '새여/죽어 너 되는 날의 길고 아득함이어'에서 '새여'라는 시구는 행간 걸침으로 다음 행과 의미상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너[→ 새]를 우러러'가 자유에 대한 동경을 나타낸다고 할 때 이 진술은 죽어서 새가 되기 전에는 자유를 누릴 수 없을 것이라 여기는 절망적인 인식, 그리고 죽어서 새가 되어서라도 마음껏 누려 보고 싶은 자유에의 열망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열망하는 그 날은 '길고 아득'하다고 함으로써 절망적인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제 4연 멀어져가는 자유

낮이 밝을수록 침침해 가는
넋 속의 저 짧은
여위어 가는 저 짧은 별발을 스쳐
떠나가는 새

- ▶ '낮이 밝을수록 침침해 가는/넋'은, 날이 밝고 화창할수록 억압된 자신의 처지를 더욱 절실히 느끼며 암담한 심정에 빠지게 되는 역설적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 '여위어 가는 저 짧은 별발을 스쳐/떠나가는 새'는 화자의 '넋 속' 풍경으로, 햇살이 약해지고 새가 날아가 버리는 풍경을 통해 화자의 암담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제 5연 창밖의 풍경과 대비되는 자신의 처지

청청한 하늘 끝
푸르른 저 산맥 너머 떠나가는 새
왜 날 올리나
덧없는 가없는 저 눈부신 구름
아아 묵인 이 가슴

- ▶ 화자는 화창한 풍경과 그 속을 나는 새를 보며 자유를 갈구했지만, 몸부림을 쳐도 부당한 억압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함으로써 한층 더 심화된 절망감과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 ▶ 제1연과 유사하게 반복되는 수미상관의 기법을 통해 구조적 안정감을 얻고 있다. 제1연의 내용을 제5연에서 변주하고 있는데, '날으는 새'를 '떠나가는 새'로, '저 흰 구름'을 '덧없는 가없는 저 눈부신 구름'으로 변주함으로써 자유를 얻는 그 날이 멀어지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며 사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27~30] 고전시가

(가) 「황강구곡가」

— 권섭 —

작품 평가

「황강구곡가」는 작가 권섭이 자신의 백부 권상하가 생시에 제자를 양성하며 은거했던 황강 일대의 승경을 배를 타고 완상하면서, 백부에 대한 그리움과 존경의 뜻을 노래한 연시조이다. 작가는 권상하의 도학자적 면모를 직접 드러내는 대신, 그가 은거한 황강 일대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권상하의 학식과 고결한 삶을 암시하고 있다. 작품은 총 10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수〉는 서사 역할을 하는 총가이고 나머지 9수는 구곡을 구성하는 각각의 장소에서의 감흥을 노래하고 있다.

제 1수 총가

하늘이 피를 열어 땅 모습도 밝을시고
천추(千秋, 오랜 세월)에 수월(水月, 물에 비친 달)이 유난히 맑았구나
아마도 석담(石潭) 파곡(巴谷)=(= 석담은 대학자 이이가 은거한 고산구곡을, 파곡은 이이를 계승했다고 평가받는 송시열이 은거한 화양구곡을 가리킴)을 다시 볼
듯하여라

- ▶ 총가에서는 황강구곡이 하늘이 정해 준 영험한 기운이 서린 땅이며, 물에 비친 맑은 달의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황강구곡이 오랜 세월 동안 맑고 깨끗한 곳이었음을 부각함으로써 이 곳이 빼어난 장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 ▶ 특히 황강구곡에서 이이가 은거했던 '석담'과 송시열이 은거했던 '파곡'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종장의 내용에서 황강구곡을 대학자들의 은거지와 견줄 만한 장소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권상하의 높은 학식을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 2수 대암

일곡은 어드메오 대암(對巖)이 기이할사
신선 땅의 깊은 물이 십 리에 긴 호수로다
엇더타 일진 범풍(一陣帆風, 배가 나아가도록 돛을 미는 한 차례의 바람)이
갈 데 알아 가느니

- ▶ 황강구곡을 구성하는 첫 번째 장소로 '대암'이 제시되고 있다. 여기서는 배를 타고 구곡을 유람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특히 종장에서 '신선 땅의 깊은 물'이 길게 흐른다고 함으로써 물의 흐름을 따라 가는 화자의 여정이 선경을 노니는 모습처럼 표현되고 있다.

제 3수 화암

이곡은 어드메오 화암(花巖)도 좋을시고
천봉(千峯, 수많은 봉우리)이 중첩한 데 한없는 연화(煙花, 안개 자욱한 봄 풍경)로다
어디서 개와 닭 울음소리 골골이 들리느니

- ▶ 황강구곡을 구성하는 두 번째 장소로 '화암'이 제시되고 있다. 종장에서는 첩첩이 솟아 있는 봉우리에 봄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는 풍경을 제시함으로써 세속과 단절된 선경과 같은 분위기를 떠올리게 한다. 종장에서는 시야에 포착되지 않는 어딘가에서 '개와 닭 울음소리'가 들려온다는 말을 통해 보이지는 않지만 인가가 가까이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종장의 시각적 이미지와 종장의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암 일대의 정경에 대한 화자의 감흥을 제시하고 있다.

제 4수 황강

삼곡은 어드메오 황강(黃江)이 여기로다
양양 현송(洋洋鉉誦, 낭랑한 거문고 소리와 글 읽고 있는 소리)이 옛집(= 권상하가 은거하며 제자들을 가르쳤던 서재를 가리킴)에서 들려오니
지금의 가을 달 비친 강물이 어제[→ 과거, 즉 권상하가 살아 있었던 때]런
듯하여라

- ▶ 황강구곡을 구성하는 세 번째 장소로 '황강'이 제시되고 있다. '옛집' 즉, 권상하의 서재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 짓는 장소로서 황강이 제시되고 있다.
- ▶ 종장의 '옛집'은 과거에 권상하가 은거하던 곳이면서 현재에도 [권상하의 제자들의] 거문고 소리와 글 읽는 소리를 통해 권상하가 남긴 자취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화자가 '여기로다'라고 말하며 특히 황강에 주목한 이유가 되기도 한다. 또한 종장에서는 '지금' 보는 풍경이 '어제'인 것 같다며, 과거를 추억하며 감회에 젖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제 8수 부용벽

칠곡은 어드메오 부용벽(芙蓉壁)이 빼어날사
백 척 높은 절벽에 학 울음을 듣자올 듯
석양에 범범 고주(泛泛孤舟, 동실 떠 있는 한 척의 배)로 오락가락하
누나

- ▶ 황강구곡을 구성하는 일곱 번째 장소로 '부용벽'이 제시되고 있다. 종장에서는 '백 척 높은 절벽'인 부용벽에서 '학'→ 학은 신선과 벗하는 영물로 문학 작품에서 자주 활용된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하다며 부용벽의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부각하고, 종장에서는 부용벽 아래 배를 띄우고 유유자적 노니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화자가 느끼는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